

2년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과와 과제

‘평창 참가’ 확정 불구 ‘비핵화’는 입장 차 커

북측 방문단 역대 최대규모 가능성 이산가족·개성공단 등 문제 남아

남과 북은 9일 판문점에서 25개월 만에 고위급회담을 갖고 '마라톤 회의'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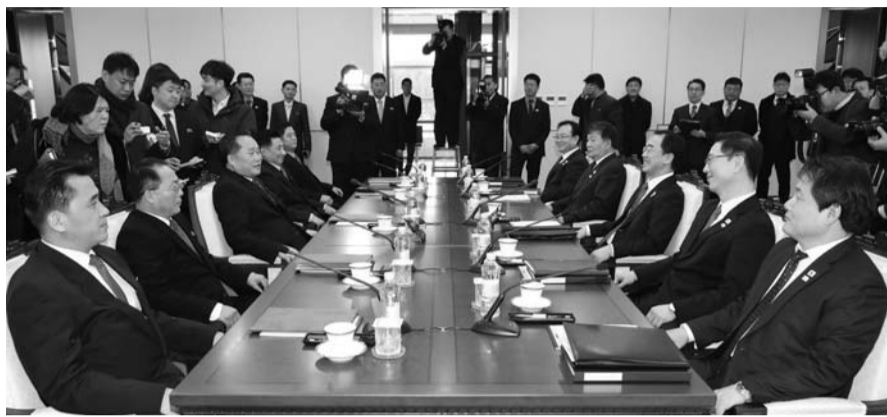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대표적이다. 향후 군사당국회담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이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면서 향후 불거질 남북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우리측이 회담 초반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최종 공동 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폐쇄된 지 2년째 되는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남북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평창 올림픽 참가 실무 논의 급선무
평창 동계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평화의집 회의장에서 전체회의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북한의 파견단을 위한 실무 준비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키로 하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북측 방문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동계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평창 올림픽에서의 북측 방문 문제는

쉽게 풀렸지만 우리측이 제기한 '비핵화' 문제는 향후 남과 북이 협력을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전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발언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리 위원장은 종결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을 지난 3일 개통했는데 '왜 이날 했다고 공개하느냐'며 불만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국 종결회의는 40분 가깝게 이어졌다.

◆숨 가뻐던 25개월만의 만남

출발부터 좋았다. 25개월만의 만남이라고 보기에 너무 화기애애했다.

북한은 이날 만남 초반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발언을 하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제안한 남측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측 단장으로 나온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첫 전체회의 초반 모두발언에서 "북남대화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 북남 고위급회담이라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 위원장은 "남북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 해서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로 한결음, 한결음 내딛을 뜻을 전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회담이 시작됐지만, 정말 첫걸음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회담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동시에 상충되긴 합니다만 '첫술에, 첫 술갈에 배부르랴'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은 판문점 남북 평화의집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5분까지 전체회의가,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 20분까지는 수석대표간 회담이 이어졌다. 또 점심식사를 포함한 양측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수석대표가 빠진 가운데 '4대4' 접촉을 이어갔다.

오후 늦어서도 남북은 '3대3' 접촉, 수석대표를 포함한 '3대3' 접촉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결과 도출에 힘썼다. 밤 8시엔 이날 회담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종결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위안부 재협상 요구 안한다”

정부, 2015년 합의, 사실 부인 못해 피해자 위한 지속적 노력 기대

정부는 9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양국간의 공식합의였던 만큼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본 스스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위안부 테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할머니께서 한결같이 바라는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도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뤄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려는 노력과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향후 처리 방향 발표와 관련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돼야 함을 명심했다. 또한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재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 자리매김 돼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韓-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文대통령-칼둔 UAE 행정총장 면담 군사 분야 협력·공조 가능성 열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상호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에너지, 전자, 관광 등 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및 공조 가능성도 열려있다.

1박2일 일정으로 지난 8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총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간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칼둔 행정총장은 이날 별도로 가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선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 공조를 진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칼둔 총장을 접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한-UAE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칼둔 특사가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상해 (양국 관계를)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칼둔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그는 "UAE는 한국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대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칼둔

청장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며 지난 연말 임 실장의 UAE 방문 이후 진행된 양국간 사안에 대해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간 우리 언론에 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에 한국과 UAE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 친구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UAE는 저희가 중동에서 맺고 있는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앞두고 당내 파열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 '청춘의 미래를 위한 부산'에 참석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9일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선언했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 온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 남아 계시는 동료들, 특히 함께 뜻을 세워 오신 청년 여러분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어디에 있던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보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先) 보수통합' 후 중도로 나아가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